



# SNS 상의 가짜 뉴스 구별하는 방법

“보기만 해도 가짜 뉴스를 구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가짜 뉴스에 속기 쉽다.”라고 워싱턴 주립대학교 밴쿠버 캠퍼스의 디지털 문해력(digital literacy) 전문가 Mike Caulfield는 말한다. 근거 없는 정치적 음모론부터 코로나19와 관련된 잘못된 정보까지, 가짜 뉴스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뉴스와 정보를 얻는 소셜미디어에서 급속하게 퍼질 수 있다. 게다가 “가장 큰 문제는 소셜미디어의 가짜뉴스 관련 정책이 일관되지 않고 정책 집행도 영성하다는 것이다.”라고 「Consumer Reports」 디지털 실험실의 기술 연구원인 Bill Fitzgerald는 말한다. 이에 「Consumer Reports」는 소셜미디어의 가짜 뉴스 대응 실태와 가짜 뉴스를 구별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 어떤 플랫폼이 가짜 뉴스를 허용하는가?

		정치 / 사회	건강/코로나 바이러스	투표/여론	조작된 미디어
	페이스북	○	△	×	×
	인스타그램	○	△	×	×
	유튜브	○	△	×	△
	트위터	○	△	×	△
	핀터레스트	△	×	×	×
	레딧	○	△	○	×
	스냅챗	△	×	×	×
	왓츠앱	○	○	○	○
	틱톡	△	×	×	×

○ 허용 △ 가끔 × 금지

2019년에 Caulfield는 가짜정보를 구별하는 방법, SIFT(방법론의 앞 글자들로 만들어진 단어)를 개발했다. 사람들은 믿을만한 내용인가를 미디어의 진짜 같은 겉모습이나 느낌에만 의존해서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소셜미디어의 포스트와 온라인 기사 속의 가짜뉴스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그 보다 자세히 봐야 한다. SIFT는 인터넷 상의 정보를 주의 깊게 보도록 고안되었는데 책이나 TV에도 적용할 수 있다. 게다가 SIFT를 실천하는 것은 90초밖에 안 걸린다.

## SIFT

### STOP 멈춘다.

읽거나 보고 있는데 놀람, 분노, 슬픔 등의 강렬한 감정을 느낀다면 잠시 멈춘다. 비판적 사고를 하지 못하도록 고의적으로 강렬한 감정 반응을 이끌어내는 포스트들이 있다.

### INVESTIGATE THE SOURCE 출처를 살핀다.

들어보지 못한 발표이거나 의심스러운 저자인가? 검색 엔진으로 찾아보면 바로 출처에 대한 평판을 알 수 있어야 한다. 출처에 대한 정보를 전혀 얻을 수 없다면 위험하다는 신호이다.

### FIND BETTER COVERAGE 더 나은 기사를 찾아본다.

다른 뉴스 플랫폼에서도 보도하고 있는지, 하고 있다면 주장하는 내용을 비교하여 확인한다. 중요한 내용이라면 다양한 플랫폼에서 보도할 것이다.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급진적인 주장이라면 의심스러운 내용이다.

### TRACE CLAIMS, QUOTES, AND MEDIA 주장, 인용, 매체를 추적해 본다.

가장 은밀하게 퍼지는 가짜 뉴스들은 전체 맥락에서 단순히 일부 사실만을 발췌한 경우이다. 온라인 기사에서 보이는 출처 링크를 클릭하거나 감정을 자극하는 인용구나 인상적인 문구를 검색엔진에서 넣어서 놓친 맥락을 알 수 있는 전체 인용문이나 비디오를 찾아본다.



\*출처: 미국의 「Consumer Reports」 2020년 11월호